

공영민 고흥군수, 지속 가능한 성장 실현 다짐

민선 9기 100일... 우주산업 중심지 위상 확보

3대 미래전략산업·신재생에너지 언급 등 모색

공영민 고흥군수가 민선 9기 취임 100일을 맞아 우주·드론·스마트팜의 3대 미래전략 산업을 축으로 지난 성과를 되짚고 군민이 일상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향후 군정 청사진을 제시했다.

군은 민선 8기 동안 다져온 탄탄한 변화·발전의 발판을 바탕으로, 민선 9기에는 산업, 교통, 복지 전반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완성해 나가고 있다.

지난 7일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누리호 5차 발사가 성공을 거두며 고흥은 대한민국 우주항공 중심지로의 위상을 다시 한번 굳건히 다졌다. 군은 이를 발판 삼아 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간발사장 구축과 제2우주센터 및 우주항공산업진흥원도 유치해 제조·시험·발사가 집적된 자족형 우주복합도시를 완성할 계획이다. 여기에 10월 1일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우주발사체 복합문화센터 ‘스페이스 고흥’이 문을 열면서

우주발사체 관련 기업의 연구와 업무 공간이 마련돼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전진기지 역할은 물론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이 유치되면 즉시 운영도 가능한 기반을 갖추게 됐다.

특히 이번 누리호 5차 발사 성공은 고흥의 미래 지평을 바꿀 핵심 동력인 3대 교통 인프라 구축에 강력한 추진력이 되고 있다. 고흥읍~봉래 간 국도 15호선 4차선 확장 사업은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가 준공되는 2030년에 맞춰 완공하는데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흥~광주 간 고속도로와 우주선철도 건설 역시 우주발사체 물류 수송과 교통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당위성을 바탕으로 국가 계획 반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우주산업의 눈부신 도약과 함께, 고흥의 미래를 이끌 또 다른 축인 드론 및 스마트팜 분야의 혁신도 가속화되고 있다. 드론특화단지 조성과 실용·배출 서비

스 활성화를 바탕으로 우주 기업 유치의 기반을 다지며 UAM(미래항공모빌리티) 시험·평가 허브 구축 등 무인항공 연구·제조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다.

군민 생활과 직결된 신재생에너지 언급 사업도 순항 중이다. 4GW의 해상풍력과 1GW 태양광을 합산한 총 5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수에서 개발하는 5GW 규모의 해상풍력에 필요한 송전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며, 주민참여 이익공유제를 통해 4인 가구 기준 월 60만원의 기본연금 지급 기반을 다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연금과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 군민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강화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해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공영민 군수는 “지난 4년이 고흥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기초를 다진 시간이었다면, 민선 9기는 그 가능성을 확실한 성과로 꽃피우는 시기다”며 “미래전략산업과 에너지 연구, 교통망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군민 모두가 자부심을 느끼는 더 큰 고흥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



공영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고흥군수가 민선 9기 출범 100일 맞아 출근길 군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소통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고흥군청

장세일 영광군수, 해상풍력 군사구역 문제 해소 건의

김병주 의원 면담...인허가·발전단지 조성 지원 요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영광군이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군사규제 해소를 위해 국회사와 정부 설득작업에 나섰다.

19일 영광군에 따르면 장세일 영광군수는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과 대통령 국무정책특보인 김병주 국회의원을 만나 영광군 해상풍력발전사업과 군사구역 중첩 문제 해소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홍농읍·백수읍·염산면·낙월면 해상에서는 24개 발전사가 총 4GW, 사업비 약 40조원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구역이 국방과학연구소 해상사격훈련구역과 해군 전신보호항로 등에 중첩돼 인허가와 발전단지 조성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일부 사업이 앞선 조사 단계에서는 조건부 승인 등을 받아 추진됐으나, 이후 공사·운영 단계의 군 협의 과정에서 부동의 의견을 받으면서 사업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고 투자 위축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장세일 군수는 최근 김병주 의원의 면담에서 대통령실 주관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군사구역과 해상풍력 사업 간 쟁점을 사전에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해상사격훈련구역 해제와 함께 군 작전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발전단지와 전신보호항로가 공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영광군 해상풍력 예비지구 지정의 필요성도 설명했다. 군은 지난 6월 낙월면 안마도 서쪽 약 20km 해역 일원, 면적 132㎢에 발전용량 945MW 규모의 예비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계획상 15MW급 발전기 63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규모다.

군은 해당 해역의 풍황과 어업활동, 해상교통, 환경·생태 여건 등을 검토해 신청했으며, 군사적인 영향 등 관계기관 협



장세일 영광군수(오른쪽)와 김병주 국회의원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영광군청

의가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앞으로 국회사와 관계부처 협의를 이어가며 군사구역 중첩 문

제 해소와 예비지구 지정에 대응하고, 주민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산업 기반 조성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p98@gwangnam.co.kr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여수시는 최근 여수국가산업단지와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핵심 거점인 울촌 미래첨단 산업단지 현장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여수시청

여수, 울촌 미래첨단산업단지 ‘현장 간부회의’

주요 사업 점검...신산업 육성·기업 유치 전략 논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여수시는 최근 여수국가산업단지와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핵심 거점인 울촌 미래첨단 산업단지 현장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서영하 여수시장을 비롯해 부시장과 국·소·단장 등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해 울촌 제2산단 추진 상황과 융복합 물류단지·광역 준설토 투기장의 공정을 및 정비 현황을 전반적으로 확인했다.

이어 수소·이차전지·반도체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유치 전략과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울촌 미래첨단 산업단지는 울촌면 여동리와 신봉리 해면 일원에 약 3조3500억

원을 투입해 총 1795만㎡ 규모의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핵심 공급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를 통해 기존 석유화학 중심의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 첨단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서영하 시장은 “석유화학산업의 장기 불황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산업구조 다변화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용지 확보가 시급하다”며 “울촌 제2산단 일원의 국가산단 지정을 위해 특별 시와 함께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담양군, 제2회 세계문화페스티벌 개최

24일 전통혼례·공연·문화 체험...이해·교류 확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담양군은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담양읍로 별문회관 일원에서 ‘제2회 담양 세계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문화로 잇는 세계, 함께하는 우리!’를 주제로 세계 각국의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교류를 넓히는 행사로 꾸며진다.

행사는 다문화가족 전통혼례를 시작으로 세계문화 교류의 날 기념식, 갑작 행사, 무료 나눔, 구매품액 일부 환급 행사 등으로 이어지며, 다양한 공연과 세계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선보인다.

또한 글로벌 문화강좌에서는 라탄 화병 만들기과 미니정원 만들기를 운영해 방문

객들이 직접 작품을 만들어보는 기회를 제공하며,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전화 (061-381-5983·070-8633-0288)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특히 이번 축제에는 지역 상인과 예술인, 이주여성연합회, 각국 공동체, 담양글로벌문화관 등이 함께 참여해 각자의 문화를 소개하고 서로 교류하며 문화적 다양성을 나눌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축제가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이웃과 함께 어울리는 즐거운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세계 각국의 문화를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만큼 군민과 관광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담양=이수사 기자 lss270@

화순군-무등산국립공원, ‘체류형 관광’ 활성화 맞손

문화·역사·생태 자원 연계 차별화 콘텐츠 공동 개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화순군은 문화·역사 자원을 연계한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및 체류형 관광 생태계 구축을 위해 최근 무등산국립공원 동부사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무등산을 찾는 당일형 탐방객의 화순 방문을 유도하고,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기반을 확대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무등산 자연 자원 및 화순 문화·역사 자원 연계 프로그램 공동 개발, 당일형 탐방객 유인을 위한 체류형 관광 콘텐츠 확충, 보유 인프라 및 운영 프로그램·서비스 상호 홍보 및 교류, 관광·탐방 인프라 및 물품·인적 자원의 공동 활용, 주요 사업 정보 공유 및 지속 가능한 협의 체계 구축 등이 추진된다.



화순군-무등산국립공원의 ‘지속가능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이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화순군청

이를 바탕으로 실무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발굴하고, 화순과 무등산 동부 지역을 잇는 특화 관광 상품을 단계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김종희 무등산국립공원 동부사무소장은 “이번 협약이 무등산의 소중한 자연 자원과 화순의 문화 자원을 연결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탐방객들에게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차별화된 탐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단과 다각도로 협

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무등산이 지닌 수려한 생태 자원과 화순의 깊이 있는 문화관광 콘텐츠가 결합하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며 “양 기관이 보유한 인프라와 역량을 적극 결합해 화순을 스쳐 지나가는 곳이 아닌, 오랫동안 머물고 다시 찾고 싶은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장성, 지적재조사 사무소 운영 12곳 대상...경계 협의 상담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장성군이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12개 지구를 대상으로 토지 경계 협의를 위한 ‘찾아가는 현장사무소’를 운영한다.

19일 장성군에 따르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운영하는 이번 현장사무소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실 경계 확인, 경계 설정 협의 상담 등을 제공한다.

경계 협의 시에는 드론으로 촬영한 항공 영상과 지적공부에 등록돼 있는 토지 경계,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을 반영한 현황 경계 측량자료 등을 활용한다.

10월 이후에는 △장성읍 기산·상오지구 △동화면 동호1지구 △함평면 장산1·2지구 △북하면 약수·중평지구에서 운영한다.

현장사무소를 방문하지 못하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장성군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 (061-390-7264·7266), 한국국토정보공사 (062-714-6835)로 전화하거나 민원봉사과로 방문해 상담을 받으면 된다.

장성=이항범 기자 lhb6699@gwangnam.co.kr